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 |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자동차조선과 김성칠 과장(2110-5631) 이윤진 사무관(5658)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

◇ 금번 합의로 **3년5개월간 지연되어온 한미 FTA의 비준·발효** 기반이 마련되어 **자동차·섬유·전자 등 산업 전반의 수출 증대** 및 경제적 혜택 실현 기대

◇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당초안보다 관세철폐시기가 늦춰졌으나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次善策이 도출**되어 대미수출 증대 기대

1.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의 의미

□ 추가협상을 통한 한미FTA 최종타결은 **경쟁국**(中·日·EU 등) **대비 조기 체결**로 **세계최대 미국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

* 미국 수입시장 규모(`09) : 1.6조 달러(중+EU 수입시장 규모(1.9조)에 근접)

□ 이번 **한미FTA 최종 타결**은 자동차 뿐 아니라,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등 **산업 전반에 거쳐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

* 한미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제조업 對美수출 연 13.3억불 증가**, **제조업 對美무역수지흑자 연 7.45억불 증가**(`07.4월, KIEP 등 11개 연구기관)

○ 특히, **섬유, 전자** 부문에 있어서는 **대미 무역수지흑자 확대** 및 **생산증대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대미무역수지는 (섬유)171백만불, (전자)34백만불 증가, 생산증가는 (섬유) 4,800억원, (전자) 1조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07.4월, KIEP 등 11개 연구기관)

□ **자동차**의 경우 당초 한미 FTA 효과 분석시 연 8.1억불 수출증대가 기대되었음

○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금번 추가협상시 그동안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수출 증대**('06년 25.9억불→'10년 40.8억불 전망) 등으로 동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됨

2. 한미 FTA 자동차 부문 추가 협상 내용

① 승용차 관세철폐기간

○ 모든 승용차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
- 미국은 관세 2.5% 발효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 후 철폐

② 전기차 관세철폐기간

○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를 4%로 인하하고, 한국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③ 화물차 관세 철폐방식

○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25%)를 당초 9년간 균등철폐에서 발효 7년 경과 후('12.1.1. 발효 전제시 '19.1.1)부터 균등 철폐

④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 한-미 FTA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 가드 도입 및 상호 적용(발동절차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 6개 요소 반영)

⑤ 안전기준

○ **(안전기준 동등성)** 연간 한국내 판매량이 25천대 이하인 미국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안전기준 준수 인정

*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만 적용, 25천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여부 등 검토,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기준 요건 부과,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시 조치권한 확보 및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부당하게 시장접근 거부·지연 않음

○ **(신기술 제품 규정)**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해 건강, 안전, 환경에 위험 초래사실 증명 못하는 한, 시장접근 거부나 지연을 하지 않고, 시장접근 거부나 리콜 결정시 상대측에 통보

⑥ 연비/ 온실가스 기준

○ '09년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 자동차 제작사에 19% 완화된 기준 적용

⑦ 투명성 기준

○ 자동차 관련 주요규정 개정시 공포일~시행일까지 12개월 도입기간 부여

○ 사후 이행검토 제도를 24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

3.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효과

1 한국산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 수준으로 관세 영향 미미

○ 재협상으로 미국 관세 철폐가 유예되었으나 이미 미국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는 한국차의 경우 효과가 적을 전망

○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15%('09)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 현재도 **관세와 무관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 : ('07)4.8→('08)5.1→('09)7.1→('10.1~10)7.9

2 현지생산이 늘고 있어 완성차 관세 유예 효과 상쇄

○ 한국차의 **미국 현지 공장 가동**(알라바마 현대 '05년 30만대, 조지아 기아 '09년 24만대)**이 크게 늘어 관세 유예에 따른 영향은 반감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시장 진출 현황(단위: 대, %)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망
수출대수 (점유율)	708,995 (88.6)	693,124 (74.5)	667,999 (72.7)	598,126 (71.6)	449,403 (68.1)	50만대 (52.6)
수출액(백만불)	8,736	8,750	8,226	7,388	5,499	63억불
현지생산 (점유율)	91,336 (11.4)	236,773 (25.5)	250,519 (27.3)	237,042 (28.4)	210,566 (31.9)	45만대 (47.3)
총계	800,331	929,897	918,518	835,168	659,969	95만대

3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부품은 대미 부품수출이 크게 확대 전망

○ 완성차 관세 2.5%에 비해 **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품은 관세가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되어 부품에서 큰 이익이 기대

○ 자동차 **부품 수출**은 현지 생산 증가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 추세**

* **자동차부품 수출**(백만불) : ('06)10,230→('07)12,436→('08)13,950→('09)11,710→('10전망)18,579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백만불) : ('06) 2,591→('07)2,843→('08)2,704→('09)2,131→('10전망)4,075

○ 특히, 부품 관세 즉시 철폐는 자동차 **부품 생산 3천여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4 한EU FTA와 균형을 맞추는 세이프 가드 도입으로 영향 미미

○ 금번 신설되는 세이프 가드는 **상호 적용**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 가능성이 낮고, 철폐전 관세**(미측 2.5%)**이상 부과될 수 없음**